

# 일본 첫 여성 총리 탄생

## 강경보수 다카이치 지명, 한일관계 변화 예상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사진)가 21일 일본이 내각제를 도입한 1885년 이후 140년 만에 첫 여성 총리가 됐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임시국회 중의원 총리 지명선거 1차 투표에서 전체 465표 중 237표를 얻어 과반을 확보했다. 이

차 투표에서는 과반에 1표 모자란 123표를 얻어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 결선 투표를 벌인 끝에 125표로 총리로 지명됐다.

그는 나루히토 일왕에게 임명장을 받고 공식적으로 내각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에는 기하라 미노루 전 방위상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경쟁했던



고이즈미 신지로·하야시 요시마사·모테기 도시미쓰 의원을 각각 방위상, 총무상, 외무상으로 기용할 방침이다. 경쟁자들을 중용함으로써 당내 화합을 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의원 10선의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안보담당상, 총무상, 자민당 정부조사위원장

등을 지낸 베테랑 정치인이다. 일본 정치권에서 드문 비세습 여성 정치인으로, 강경 보수 노선을 고수하며 '유리천장을 깬 여성 정치인'으로 불린다. 그는 이달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1999년부터 자민당과 연립을 유지해 온 중도 보수 성향의 공명당이 연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정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유사한 보수 성

향의 제2야당 일본유신회를 새 연정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며 총리직에 오르게 됐다.

다만 유신회가 각료를 과견하지 않는 '각외 협력' 형태로 연정에 참여하기로 해, 기존 자민당·공명당 연정에 비해 협력의 폭이 좁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자민당과 유신회 간에 의원 정수 축소, 기업·단체 후원금 폐지, 선거 출마자 조율, 당 간 연결고리 약화 등 네 가지 갈등 요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아사히신문은 연정 상대가 공명당에서 유신회로 바뀌면서 개혁과 방위력 강화 등 보수적 정책 선택이 한층 짙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두 당의 의석수만으로는 과반 확보가 어렵다. 중의원에서 자민당은 196석, 유신회는 35석으로 과반(233석)에 2석이 부족하며, 참의원에서도 자민당 101석, 유신회 19

석으로 과반(125석)에 5석이 모자란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내각은 법안 및 예산안 처리를 위해 타 정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자민당 의원총회에서 "유연성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확실히 나아가겠다"며 "폭넓은 정당과의 대화를 통해 합의를 쌓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내각 출범으로 한일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는 과거 역사·영토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아스쿠니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해 온 대표적 '매파' 정치인으로 꼽힌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APEC 정상회의의 일정을 고려해 참배를 보류했지만, 향후 보수층 결집을 위해 다시 참배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한일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중국 3분기 4.8% 성장, 부동산 침체 지속

중국 경제가 3분기에 1년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 긴장과 내수 부진이 맞물리며 성장세가 둔화한 것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분기(5.2%)보다 낮은 수준으로, 2024년 3분기 이후 가장 느린 성장률이다.

올해 1~9월 전체로는 연율 5.2% 성장을 기록했으며, 이는 정부의 연간 성장 목표치인 '약 5%'에 근접한 수준이다. 하지만 3분기 성장 둔화는 제조업, 부동산, 소비 등 전반의

경기 위축을 반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가운데, 중국의 대미 수출은 9월에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수출은 8.3% 증가해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전기차(EV)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로 늘었으며, 국내 승용차 판매도 11.2% 증가했다. 다만 8월(15% 증가)에 비하면 상승폭은 다소 줄었다.

중국 경제의 고질적 약점인 부동산 경기 침체는 소비 심리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올해 1~9월 주택 판매액은 전년 대비 7.6% 감소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S&P는 2025년 신

규 주택 판매가 전년 대비 8%, 2026년에는 6~7%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생산은 9월 전년 대비 6.5% 증가하며 3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됐지만, 소매판매 증가율은 3%에 그쳐 내수 둔화를 반영했다. 설비·공장 등 고정자산 투자도 0.5% 감소해 민간 및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물가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와 도매물가가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며 디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고 있다.

ING은행 중국 수석이코노미스트 린 송은 "올해 상반기 양호한 성장세가 일부 완충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존 부양정책의 효과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며 "소비 촉진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연말까지 금리를 추가 인하해 소비와 투자를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중국 경제는 연간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미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마찰,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성장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올해 중국의 연간 성장률을 4.8%로 전망하고 있다.

처방 없이 예약 없이  
워크인 환영

행복한 약국, 웃음이 있는 약국

독감 주사  
코비드/RSV  
대상포진  
페렴 주사  
파상풍 주사  
\* 모든 백신 접종

# 정약국



## Jung Pharmacy

각종 보험 환영(메디케어/메디케이드/HMO/PPO)



정은혜 약학 박사  
(Grace Jung)

건강 상담/혈압 당뇨 측정/예방 접종/처방약 조제/무료 배달 서비스/한국약 판매/비타민/건강 보조제

정약국 714.752.6027

Open hours: 월-금 9am-6pm / 토 9am-2pm | Fax: 714.676.5508

카카오톡 ID: jungrx | 6771 Beach Blvd. Ste E, Buena Park, CA 90621



소스몰 맞은편, 명인만두 옆